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3호 【루계 제24556호】 주체10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몽골인민당 총비서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인민당 총비서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몽골인민당대표단 단장인 즈.멍흐바뜨 총비서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주석회고 스위스위원회 결성식이 11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오는 7월 8일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을 깊은 회고속에 맞이하게 된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조선의 벗들,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상실이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불멸의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세계혁명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에 즈음한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김일성주석회고 스위스위원회의 결성을 선포한다.

회고위원회는 6월 하순 또는 7월초에 진행되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국제적인 인터네트토론회에 적극 참가하여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할것이다.

회고위원회는 주체103(2014)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인터네트홈페지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업적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회고 체스꼬위원회가 7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까프까가, 부위원장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요제프 쎄르비스따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8일과 1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보도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렌트겐과, 초음파과, 병리해부과, 피부과, 집중치료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치료사업과 병원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김정일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라고 하시면서 치료사업과 관리운영을 잘하여 김정일령도자의 사랑이 군인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인것만큼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의료설비와 기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애호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입원실도 돌아보시면서 전투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만나시여 치료는 어떻게 하고있는가, 몸상태는 어떤가를 물어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어 병원에서 보양을 받고있는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아들이 퇴원한 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UPI통신, 인터네트신문 《글로벌 포스트》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오케이죤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보도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선수들이 활쏘기를 잘한다고 치하하시며 활쏘기경기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자면 다른 체육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세계의 창공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식의 활쏘기기술과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완성하며 훈련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국의 국제방송,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신화망, 인민망, 환구망, 중국망, 방송망, 청년망, 참고소식망, 광명망,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들을 보도하였다.

캄보쟈신문 《랴스마이 캄보쟈》,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라오스통신은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 웰남, 라오스, 네팔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 새 과학연구기지건설 적극 추진

###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살림집건설과 동시에 새 과학연구기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번에 국가과학원지구에는 연건평이 각각 1만 4천여㎡, 8천여㎡에 달하는 기초과학부문 연구소와 자연에네르기연구소가 새로 일떠서고있다.

이 대상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한석규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의 돌격대원들은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살림집건설대상들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 및 콩크리트치기를 끝내였다. 그들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지상골조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이달중으로 모든 골조공사를 결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조선인민군 한석규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며 기초과학부문 연구소골조공사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광일, 방윤호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다른 시공단위들보다 건설을 늦게 시작하고 건설기재들이 부족한 조건이지만 사상전의 포성을 드세차게 울려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철의 정신력을 만장약한 부대의 지휘관들부터가 병사들과 함께 혼합물도 이기고 블로크도 나르며 앞장에서 뛰고 또 뛰고있다. 이곳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양생기일을 줄이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수천장의 층막부재와 15만장이상의 블로크를 생산함으로써 5월 중순부터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이고있다.

합현섭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물리학연구소를 비롯한 2개 호동의 건물골조공사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건물층수가 높아지는데 맞게 맞들이전, 마대전을 더욱 힘있게 들이대고 띠보양생기일을 절반으로 줄여 한개 층의 골조공사속도를 처음에 비하여 1.5배이상 끌어올리고있다. 력학연구소골조공사를 맡은 라철준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골조공사완공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기둥콩크리트치기, 블로크축조, 상판부재조립 등 모든 공정을 치차처럼 맞물리고 일손마다에서 불꽃을 날리고있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기초과학부문 연구소는 20일현재 3, 4층골조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자기의 덩지큰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현장지휘부적인 공사계획을 한주일이상 앞당기며 자연에네르기연구소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와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4월 중순에 연구소골조공사를 앞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데 기초하여 5월에 들어와 건설자재를 집중하면서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기본청사건설을 맡은 제6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대담하고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20일현재 5층골조공사에 진입하였으며 그 기세로 마지막 돌격전을 힘차게 들이대고있다.

제7려단과 제3려단의 돌격대원들도 보조청사와 중간시험공장골조공사를 무조건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밑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본때로 국가과학원 기초과학부문 연구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선인민군 한석규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상반년 철강재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 청진강재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15일까지 상반년도 철강재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려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기어이 2년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가는 한편 협의회와 생산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창안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유도로한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련속가열로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많은 량의 무연탄을 절약하면서도 가열온도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조종 및 감시, 생산지령을 정보화, 과학화할수 있게 생산종합지령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성과적으로 끝냈다.

일군들의 전투적인 지휘와 능란한 작전밑에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철강재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많은 용해공들과 가열공들, 압연공들이 1.4분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만족하지 않고 상반년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목표밑에 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유도로직장의 용해공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용해공들은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창안하여 유도로의 정상관리를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의 각강을 생산하였다. 이 나날 수십명의 용해공들이 상반년도생산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서는 자랑을 떨치였다.

혁신의 불길은 압연작업반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압연공들은 청진시 포항중심부건설장과 염분진호텔건설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대고조건설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줄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철강재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여 공장이 상반년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열작업반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가열공들은 가열로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각강들을 제때에 가열하였다.

수리작업반과 운수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설비, 기대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공장이 상반년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상반년도 철강재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드세찬 공격전을 맹렬하게 들이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철도현대화방침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참모부의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더 많은 화차를 보내주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화차수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특히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 올해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화차제작과 수리의 첫 공정을 맡은 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주강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기로의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매일 많은 량의 쇠물을 뽑아내여 화차수리에 필요한 주강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집단주의정신으로 쇠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달 주강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각종 단조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부속품가공과 조립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2가공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화차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가공함으로써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화차조립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매일 맡은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차직장에서도 로력조직과 생산지휘를 짜고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직장앞에 맡겨진 대차조립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이밖에도 제관직장과 프레스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화차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특파기자

##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 고무추동

###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협동벌에서 모내기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지금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참신하게 조직진행하여 그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농근맹조직들에 당면한 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지휘부가 조직되였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목적밑에 벌어지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은 도, 시, 군,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호상간에 진행되는 경쟁이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농근맹조직들의 일군들이 경쟁열의이자 애국열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농업근로자들이 알곡증산을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게 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내용으로 된 해설담화제강을 만들어 도, 시, 군농근맹조직들에 내려보내였다. 일군들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강서구역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있은 후 경쟁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 내려간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올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협동벌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고 호소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이와 함께 경쟁추진 및 평가성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었다.

황해남도농근맹위원회 일군들은 시, 군농근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이 모내기전투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태탄군의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간 도농근맹위원회일군은 그곳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모두가 사회주의경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는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여기에 고무된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배천, 은천, 안악, 신천군농근맹위원회의 경쟁지휘부일군들도 모내기전투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데 모를 박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내밀고있다.

영광군, 신포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시, 군농근맹조직들에서는 경쟁도표판운영과 총화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경쟁심을 최대로 높여주고있다.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의 경쟁지휘부일군들도 포전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모내기도 같이하면서 대중을 혁신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염주군, 룡천군농근맹위원회 경쟁지휘부일군들은 경쟁에서 앞서나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소행을 제때에 찾아내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각지 농근맹조직들의 실속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농촌들에서의 모내기전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 백두의 혁명전통을 새겨주는 항일전구의 메아리

##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을 맞으며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을 맞으며 우리는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를 더듬어 취재길에 올랐다.

우리는 지금 력사의 5호물동에 서있다.

북대정자쪽으로 연연히 뻗어있는 산등성이며 깊숙한 골짜기들을 굽어보니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땅으로 환희에 넘쳐 달려오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금시 보이는듯싶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답사자들속에 에워싸인 항일의 군복차림을 한 강사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물동가에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8(1939)년 4월 북대정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에서 제시하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할데 대한 방침에 따라 5월 18일 부대는 5호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물동에서 벗어나 둔덕진 수림속에 이르니 당시 조국진군부대의 대원들이 잠시 걸터앉아 휴식하였다는 굉장한 크기의 진대통이 력사의 증견자인듯 길게 놓여있었다.

숭엄한 감정에 싸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진군한 그 길을 밟으면서 청봉숙영지에 이르렀다. 청봉은 봄날의 정기속에 푸른 빛발을 뿜으며 항일의 대오가 첫밤을 보냈던 뜻깊은 사연을 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제7련대의 일부 성원들로 전방과 후방에 경계구분대를 배치하신 다음 몸소 전령병들을 데리시고 청봉마루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봉마루에서 조국의 산야를 굽어보시면서 적정과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피신 다음 이곳에서 숙영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우리는 청봉마루에 올라 동서남북을 굽어보았다. 산릉선들이 리명수와 5호물동, 건창과 소백산쪽으로 뻗어있어 적의 기동을 한눈에 감시할수 있고 부대가 사방으로 신속히 기동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지점이였다는것이 대뜸 알렸다.

우리와 함께 청봉마루에 오른 한 군인답사자가 손채양을 하고 련련한 백두산발을 바라보며 소감을 터놓았다.

《숙영지는 정말 자연지리적으로나 군사행동에서나 매우 유리한 곳입니다. 밀림이 울창하여 부대의 행동에서 은밀성을 보장할수 있고 지형상 앞은 급한 경사지로 되여있어 불의의 정황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길수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상한 전략전술적안목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이야기가 자욱자욱마다에 수놓아진 백두밀림속으로 걷고있는 우리는 이를데 없는 흥분과 감개를 금할수 없었다. 답사자들과 함께 우리는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에서 멀지 않은 울창한 수림지대에 자리잡은 건창숙영지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청봉에서 10리밖에 안되는 건창에서 또다시 숙영하게 하시였다. 적들이 주력부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던 그때 멀리 가는척 하면서 적의 코밑에 돌아앉음으로써 놈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비상한 전법이였다.

이깔나무와 봇나무가 빼곡이 들어선 태고연한 밀림속으로 답사행군길을 재촉하던 우리는 베개봉숙영지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 일대는 경사가 급한 대원시림과 무연한 고원지대로 이루어져있었으므로 정황이 발생되면 삼지연쪽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무산지구로 쑥 빠질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땅에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리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일제가 국경경비를 위하여 이른바 《특별예산》으로 갑산과 무산의 무인지경을 련결하여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무산지구로 신속히 진출할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갑무경비도로를 통과한 후 일제는 아우성쳤다. 전장에서 머리가 희여졌다는 일제의 《백전로장》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낮에 뻐젓이 도로를 통과하였다는것을 알고는 대경실색하여 《미증유의 피사》라고 비명을 질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무산지구진공로정을 편답하는 답사자들의 마음은 봄물이 싱싱 오르는 이깔숲처럼 설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포숙영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회의를 여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대홍단지구로 진격하며 우선 신사동과 신개척 두 방향으로 진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2일 대홍단 국사당부근에 이르시여 잠시 휴식하신 다음 이미 세우신 작전계획대로 조선인민혁명군 제7련대를 신개척방향으로 떠나보내시였으며 제8련대와 경위중대를 친솔하시고 신사동으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사동에 진출하시여 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라는 연설을 하신 후 23일 새벽에 대홍단벌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추격을 예견하시여 이곳에 매복을 조직하시였다. 아침 8시경 신개척일대에 진출하였다가 집결장소로 돌아오는 제7련대의 뒤를 수백명의 적들이 바싹 따라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이 매복하고있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는 약점에 따라 제7련대로 하여금 매복지점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였다.

제7련대가 통과한 순간 사격명령이 내렸다. 보총, 기관총들이 일시에 불을 뿜었다. 매복한 부대들이 맹렬한 사격을 개시하자 제7련대도 돌아서서 정면으로 적을 답새겼다. 불의의 타격에 많은 인원을 잃고 국사당언덕에로 퇴각하였던 적들은 신개척과 신사동방향에서 증원해온 부대와 합세하여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였다. 놈들은 국사당언덕밑 수림변두리에 일부 력량을 남겨두고 기본력량은 북쪽으로 우회하여 익측과 후방을 타격하려고 하였다. 적들의 전술적의도를 포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의 일부를 우회시켜 놈들을 역포위하여 전멸시키시였다. 국사당계선에 남아서 발악하던 적들은 황급히 유곡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그 방향에서 대홍단으로 급히 달려오던 적증원부대와 맞서 제놈들끼리 싸움을 벌려 또다시 수많은 사상자를 내였다.

우리는 그날의 격전장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삼가 옷깃을 여미였다.

한손을 높이 드시고 한놈도 놓치지 말라는 멸적의 구령을 내리시는 항일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

대홍단전투지휘처와 원쑤들에게 불소나기를 퍼붓던 그날의 통쾌한 전투담을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세그루의 이깔나무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우리는 지난 3월 여기에서 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사격경기가 진행되였던 사실도 상기하였다. 펄펄 나는 일당백싸움군들이 항일전구에서 울린 멸적의 총성은 우리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선고하며 천고의 밀림에 메아리쳐갔을것이다.

백두산바람이 불어오는 력사의 대홍단벌에서 우리는 마음속격정을 한껏 터쳤다.

조선혁명의 넋이며 생명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년보검으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그 이름도 빛나는 백두산장군들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기와 담력을 그대로 지니신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미대결전을 끝까지 결속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항일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전령병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압록강의 소연한 물소리가 들리여오는 언덕에서 5호물동혁명전적지 강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진군부대가 압록강을 건느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리오송동지를 몸소 업으시였다.

사랑하는 전령병을 등에 업으시고 사품치는 물결을 헤가르시면서 그이께서는 이게 무슨 강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시였다. 그러나 리오송동지는 선뜻 말씀올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을 건느면서도 무슨 강인지 모르는 애어린 전사를 두고 마음에 걸리시는지 잠시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압록강이라고 알려주시였다.

그러자 리오송동지는 강물에 자기를 내려놔달라고 졸랐다. 조국의 강에 몸을 적시고싶다는것이였다.

타향에서 나서 어머니의 품이란 모르고 자란 리오송동지는 조국땅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품에라도 안긴것만 같아서 그이께 이제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겠는가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땅에 영원히 돌아오기 위해서 아마 되돌아가야 할것 같소. …》**

조국땅에 영원히 돌아오기 위하여!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누구보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하지만 조국은 일제의 발굽밑에 신음하고있었다.

그래서 투사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뒤에 남기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야만 하였다.

특파기자

수필

# 대홍단벌의 진달래

봄바람에 꽃잎을 활짝 펼치며 앞을 다투어 피여난 진달래로 하여 대홍단벌은 붉게 타는듯싶다.

수난의 세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진달래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였다.

항일의 투사들은 해빛을 반겨 붉게 피는 떨기떨기 진달래에서 해방의 봄을 기다리는 겨레의 모습을 보았다. 조국진군의 그날 녀대원들과 함께 진달래꽃속에 얼굴을 묻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의 진달래! …비바람도 이겨내고 눈보라도 이겨내고 끝끝내 피여났군요!》라고 하시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조국의 진달래, 압록강계곡에 속절없이 피였다지군 하던 진달래는 력사의 그날에는 해방의 봄빛을 안고 조국에로 진군한 투사들을 반기여 붉게붉게 피였었다.

울울창창한 백두밀림을 배경으로 천연암반을 다듬어세운 비에는 혁명전적지에 피여난 진달래를 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이 새겨져있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조국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념원이 담겨져있다고 하신 뜻깊은 말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진달래꽃을 볼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간고한 나날들이 감회깊이 회상되여 시라도 읊고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진달래, 백두산의 진달래, 연분홍색진달래, 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있는 아름다운 꽃인가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이 혁명전적지에서 피는 진달래꽃을 무심히 보지 말아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진달래는 무심히 볼수 없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진달래는 언제나 붉게 피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아가신 그날의 사연을 못 잊어 활짝 피여난 만경대의 진달래,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우에 반겨웃던 철령의 진달래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최전연고지들과 산야들마다에 아름답게 피고있다.

진달래처럼 붉게 타는 마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들어가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절절한 심정이다.

정녕 대홍단벌의 진달래는 선군혁명위업완성의 성스러운 길에 조국의 진달래로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특파기자

대홍단혁명전적지에 붉게 피여난 진달래를 보며 조국애로 가슴끓이고있다. 특파기자 찍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 몽골인민당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5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즈.멍흐바뜨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가장 공고한 관계이며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 좋게 발전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체류기간 조선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목격하고 조선인민의 근면성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예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사 나

예멘공화국 대통령

**아브드 랍부 만쑤르 알 하디각하**

나는 예멘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5월 22일 평 양

# 로작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의 심오한 사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가 로작의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작의 진수를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내려간 초급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로작의 내용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해설하는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로작학습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으며 당면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영일

# 서해곡창 연백벌이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는다

## 나라쌀독을 우리가 맡자

### 연안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연안땅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나라쌀독을 우리가 맡자는 각오를 안고 모내기를 다그치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귀중한 이 땅을 위해 한생을 바친 영웅들의 넋을 이어 애국에 살려는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의 모내기전투에서 무엇보다 긴장하게 제기된것은 물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조직되였다. 모임장소로 들어서던 일군들의 시선이 일시에 한곳에 집중되였다. 거기에는 지난 시기 군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소개판이 있었다. 그 이름들을 입속말로 조용히 불러보는 이들의 숨결이 점차 높아졌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의 값높은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던 그 시각 일군들모두가 세차게 높뛰는 자신들의 심장에 물어보았다.

영웅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하였겠는가. 물때문에 한치의 땅이라도 묵인 농민영웅, 애국농민이 과연 있었던가.

협의회에서는 비상대책이 세워졌다.

일군들은 수문을 비롯한 관개시설물들을 하나씩 맡고 협의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현지로 달려나갔다. 크고작은 관개수로들에서의 물흐름상태와 농장들에 대한 물보장실태 등이 군에 즉시 보고되고 즉시 대책하는 정연한 물사령지휘체계가 세워졌다. 군관개관리소에서는 여러가지 예비부속품소재들을 미리 준비해놓았다가 임의의 부속품보장문제가 제기되는 즉시 그것을 가공하여 보내주었다. 수리공들은 여러 지역들을 수시로 오가면서 양수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농장들에서는 모내기를 적극 내밀수 있게 되였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오현협동농장 리창선영웅작업반의 실례를 들어보자. 이 작업반에는 100여정보의 논밭이 있다. 밭작물들을 심고 가꾸면서 모내기적기를 보장하자니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아름찬 일감을 놓고 누구도 주춤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팔소매를 걷고나선 작업반원들은 논갈이를 계획보다 보름앞당겨 끝냈다. 그 기세로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와 밭 2회김매기까지 빨리 끝내고 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여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쳤다.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남편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준 당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분조장 진연실동무는 분조원들과 함께 혁신창조의 앞장에 섰다.

한몸바쳐 귀중한 협동농장재산을 구원한 리성진영웅을 낳은 송호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는 영웅의 안해가 맡아 온갖 정성을 다해 관리하는 4마리의 부림소를 리용하여 수십정보의 논갈이를 해제끼였다. 결과 작업반에서는 수백kg의 기름을 절약하면서도 논갈이를 빨리 끝내고 적기에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이 작업반의 성과를 일반화하여 모내기실적을 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2.5km의 물길을 새로 형성하는것과 함께 철판, 변압기 등을 자체로 해결하여 양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앞당겨 모내기를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고 포전마다 푸른 주단들을 련속 펼쳐나갔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의해 군에서의 모내기전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연안군 천태협동농장에서—

## 이삭아지수확보의 묘리를 찾아

###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영양단지모내기를 적기에 성과적으로 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던 날이였다. 한자리에 모여앉은 농장일군들은 모상태가 좋은것은 물론 농장원들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졌기때문에 모내기는 문제로 될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농장기사장이 일군들을 둘러보며 지난해 다른 농장의 경우를 보면 한 포전에서도 이삭아지수가 많은 포기들이 있는가 하면 적은 포기들도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일군들이 선듯 대답 못하자 기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영양단지모의 우월성은 이삭아지를 많이 치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영양단지모도 묘리를 알고 내야 이삭아지수를 늘일수 있다. 지난해 영양단지모를 키워 농사를 지은 농장의 경험을 보면 영양단지웃면이 포전과 수평되게 모를 낼 때 이삭아지가 제일 많았다. …

사실 지난해 농장일군들은 영양단지모를 낸 청단군 남촌협동농장벌을 여러차례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기사장은 이 농장에서도 처음으로 많은 면적의 논에 영양단지모를 키워낸것만큼 아직 실천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제들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포기당 이삭아지수를 세여보고 논벼의 품종별생육상태도 관찰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수첩에 적군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이삭아지수를 최대로 늘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냈던것이였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일군들은 기술지도의 중심을 여기에 정하고 모내기전투장에 나가 농장원들에게 영양단지모를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내야 이삭아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신심을 가진 농장원들은 다문 한평의 논에 모를 내도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농장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잘 정하여 무효아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것이다. 포전들의 특성에 따라 평당 포기수를 바로 정하도록 한 사실을 보자.

처음 영양단지모내기문제가 상정되였을 때 평당 포기수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의견은 하나같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관리위원장은 무효아지가 생기지 않게 하자면 모내기도 적기에 하고 비료시비와 논물관리도 잘해야 하지만 평당 포기수를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정하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지력상태에 따라 포전들을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속성모를 낼 때보다 평당 포기수를 훨씬 적게 정하는 원칙에서 포전별특성에 맞게 모내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방법은 지난해 영양단지모를 키워 농사를 지은 농장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종합분석하는 과정에 찾아낸 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관리위원장의 말을 들은 일군들은 저마다 포전들의 특성에 따라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해야 이삭아지수를 늘일수 있다고 하면서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관리위원장은 그것을 종합하고 일군들의 의견일치를 본데 기초하여 영양단지모내기에 필요되는 모줄과 모자를 만들어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아 모내기에 받아들인 결과는 좋았다.

영양단지모내기성과가 오른것은 물론 평당 포기수가 정확히 보장되여 이삭아지수를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 청단군에서

## 벼모종류별특성에 맞게

올해 청단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논벼의 정보당 소출을 높이기 위해 영양랭상모와 속성모, 단지모, 큰모 등 여러가지 앞선 벼모기르기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있다. 이에 맞게 군에서는 벼모종류별에 따르는 논벼재배가 은을 내도록 기술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벼모종류별에 따르는 모판관리와 모내기에 대한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여러차례 조직하였을뿐아니라 농장들에서도 작업반, 분조단위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매 농장의 실정과 기후조건, 포전별토양조건에 따르는 벼모종류별논벼재배면적을 확정해주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군의 일군들의 대담한 작전과 지휘로 하여 군안의 협동벌마다에 과학농사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심평협동농장에서는 속성모에 의한 논벼재배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일군들이 앞장에서 기술지도를 깐지게 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단지모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을 적용하여 알곡생산을 늘인 남촌협동농장에서는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단지모기르기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청단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군의 다른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벼모종류별에 따라 모내기일정계획을 바로세운데 기초하여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에서는 벼모종류별에 따르는 모내기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과학농사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 지원자들의 뜨거운 마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연백벌에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농업부문의 연구사들과 군들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켜가려는 열의를 안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모내기전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껏 지원하고 있다.

### 협동벌을 찾은 연구사들

우리와 만난 배천군 일군은 지금 농업과학원 황해남도농업과학분원 연구사들이 농장벌에 나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월협동농장에 나온 농업과학분원 실장은 우리도 주타격방향의 전투원들이라고 하면서 포전들을 돌아보고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추락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하나 밝혀냈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추락현상을 막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주었다. 문산, 금성협동농장에 나간 연구사들도 농장의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 농장원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연안군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농촌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있다. 그들은 수십종의 많은 농기계부속품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해가지고 농촌에 나가 농사일을 도와주고있다. 그들중에는 연안군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중소농기구를 마련해가지고 해남협동농장에 나간 이들은 자기들이 마련한 중소농기구를 넘겨주고 농장원들과 어울려 모도 뜨고 모내기도 하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군직매점과 군약초관리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품을 들여 마련한 농기계부속품과 중소농기구를 가지고 라진포, 룡호협동농장에 나가 논두렁매질도 하고 모도 운반해주면서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나날이 흐르는 과정에 그들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있다.

### 호평받는 현장치료대

청단군 청단협동농장의 모내기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이곳 진료소 의료일군들의 후더운 땀방울도 스며있다.

며칠전이였다.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농장벌을 돌아보며 현장치료활동을 벌리던 진료소의 한 의사는 뜻밖에 한 농장원이 배를 그러안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지체없이 달려가 진찰을 해보니 급성위염이였다. 이어 그는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이렇게 하여 환자를 소생시킨 그는 그 농장원이 일하던 포전에 들어가 모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진료소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이렇게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주타격방향의 전투원된 심정을 안고 이들이 걷는 지원의 걸음마다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 어느 분조가 앞섰는가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배천군 금성협동농장 제2작업반 포전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몰아친다.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붓을 댄다.

《과연 어느 분조를 먼저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군.》

작업반장의 이런 목소리가 울린다. 자랑어린 그 목소리에 농장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여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열의를 안고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이들이다.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포전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매 분조농장원들이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모내기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으니 분조별승부를 가르기 어렵다는 작업반장의 말은 너무도 당연한것이 아니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를 찾아주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를 찾아주신 60돐 기념보고회가 22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보고회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금성청년출판사, 청년전위신문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오혜선 금성청년출판사 사장겸 책임주필, 최순철 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땅에 전승의 환희가 넘쳐나던 주체43(1954)년 5월 22일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의 전신인 민주청년사를 찾으시여 청소년출판보도물건설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소년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편집할데 대한 문제, 항일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를 실을데 대한 문제 등 청소년출판물을 철두철미 수령의 출판물, 당의 출판물로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소년단원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과 용감히 싸운 이야기와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게재할데 대한 문제, 글과 편집, 사진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의 청소년출판보도물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주청년사를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주체의 청소년출판보도물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영원히 수령의 출판보도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주체의 청년운동과 청소년출판물건설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소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소년출판물의 편집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선군시대 청소년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을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 소년근위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청소년출판물건설사상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믿음과 사랑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청소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출판보도선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전통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지덕체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청소년출판물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투철한 복무관점, 값높은 헌신이 안아온 결실

### 회양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회양군이 변모되였다.

기술개건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 세차게 울리는 지방공업공장들, 종합상점, 직매점을 비롯한 상점망들, 소재지에 즐비하게 늘어선 아빠트들…

이 모든것이 단 몇해사이에 그것도 보수가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였다. 몇해전의 흔적은 찾아볼수도 없다.

여기에는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고 발이 닳도록 헌신의 자욱을 찍으며 군내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수고가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군을 꾸리는 문제를 놓고 군급기관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던 몇해전의 일이다.

모임에서 군당책임비서 김홍길동무는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제기하였다.

종이공장, 옷공장, 화학일용품공장, 기계수리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의 건물을 헐고 새롭게 건설하며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 수십동의 아빠트를 건설하는것…

모임참가자들은 한순간 놀라와했다. 마음먹고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우려심이 앞섰던것이다. 조건이 어려운 군의 실정에서 그 아름찬 일감을 꽤 해낼수 있겠는지.

사실 철령너머에 위치한 회양군은 해발고가 높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혀있으며 기차길도 없어 무슨 일을 한가지 하자고 해도 곱절 품이 든다. 더구나 이전에 입었던 큰물피해의 흔적도 채 가셔내지 못한 상태에서 군자체로 그런 일감을 해낸다는것은 그야말로 닭알로 바위치기라고 생각되였다. 그러니 모임참가자들이 놀랄수밖에 없었다. 지어 일부 일군들은 갓 임명된 책임비서가 군의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럴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그 추측은 빗나간것이였다. 군에 온 첫날부터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료해도 하면서 묘안을 찾은 책임비서였다.

— 조건이 어렵다고 움츠리기만 하면 언제 가도 인민생활을 풀수 없다. 문제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군들의 낡은 사고관점에 있다.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잊지 말자. 생눈길을 헤치는 심정으로 너도 나도 함께 뛰자.

책임비서의 이야기는 모임참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건설용세멘트는 이미 마련해놓았다는것, 직매점 지배인 김경순동무를 비롯한 군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을 만나보니 열의가 좋다는것, 자체의 힘으로 자기 공장, 자기 일터를 일떠세우겠다고 윽윽한다는것…

계속하여 들려준 책임비서의 이야기는 모임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가지도록 하였다.

정신이 번쩍 들게 협의회를 끝고나가면서 책임비서는 문제해결의 방도도 명백히 내놓았다.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불같이 헌신하자는것, 바로 이것이 그가 내놓은 근본방도였다. 위력한 정치사업인 일군들의 이신작칙에 군발전의 종자가 있고 대중발동의 묘술이 있기때문이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당일군들이 섰다. 군당위원회부서들이 중요대상을 하나씩 맡았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장공장과 화학일용품공장 그리고 탁아소와 한동의 아빠트건설을 맡은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군당책임비서부터가 장공장건설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눌러앉았다. 보이라개조와 현대적인 미감이 나게 건물을 일떠세우는데 몸을 깊숙이 잠그었다.

당일군들의 모범을 본받아 군인민위원회일군들도 종이공장과 은덕원, 살림집건설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군급기관일군들이 떨쳐나 단위가 맡은 대상의 건설공사 및 기술개건을 다그쳤다. 낡은 건물들이 통채로 없어지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움씰움씰 솟아오르는것과 동시에 일군들의 낡은 사고관점은 뿌리채 뽑히기 시작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끊임없이 찾아냈다.

그 한 실례가 일군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것이다.

해당 일군들이 단위들을 순회하며 건설 및 기술개건추진정형을 알아보고 록화촬영을 하여 매 주마다 진행되는 군일군들의 모임에서 보여주게 하였다. 한주일의 실적을 대비적으로 보여주어 일군들을 분발시키자는 목적에서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기를 마련하여 군의 일군들이 집체적으로 단위들을 순회하며 건설 및 기술개건추진정형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것은 곧 일군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경쟁심은 곧 일군들의 일욕심으로 전환되였다.

기계수리공장 지배인 리동수, 옷공장 지배인 김정화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역할이 최대로 높아지자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였다. 창조와 혁신의 열풍으로 온 군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아래에 이런 사실이 있다.

기계수리공장의 건물 3동을 17명의 종업원이, 직매점의 3층짜리 건물은 4명의 종업원이, 수백㎡의 옷공장건물은 6명의 종업원이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누구나 일감을 안고 바삐 뛰고있다는것을.

이런 단위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기마련이다. 불과 2~3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군이 천지개벽된것이다.

얼마전에는 군에서 자체로 세멘트공정을 새로 꾸려 소성로에 불을 지폈고 지금은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고있다. 현대화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이 활성화되여 인민들이 덕을 단단히 보고있으며 훌륭히 건설된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칠줄 모른다.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과 일군들의 값높은 헌신은 기적창조의 열쇠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전경서

#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활짝 꽃피워온 혁명적출판물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소년출판보도부문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6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청소년출판물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 세대들을 당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입니다.》**

5월 22일,

이날은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추억깊은 날이다.

60년전 그날 청소년출판보도부문에 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에 대한 생각으로 누구나 끓어넘치는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에 아로새겨진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사는 우리의 청소년출판물이 어떻게 되여 혁명의 년대와 년대마다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왔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안고

금성청년출판사가 걸어온 성스러운 력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청소년교양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시고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조국이 전화의 재더미를 털고 솟구쳐오르던 때인 60년전 5월의 그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로새기신 령도의 자욱은 청소년출판물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비범한 슬기와 예지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많이 소개할데 대한 문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소개하는 문제, 글을 짧고 재미나면서도 알맹이가 똑똑히 안겨오게 쓸데 대한 문제…

기자, 편집원들이 무엇을 생명으로 삼고 무엇을 근본원칙으로 하며 어떤 집필기풍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날의 말씀들은 참으로 귀중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이렇게 력사에 길이 빛날 자욱을 힘있게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청소년출판물의 독자가 되시여 그 실효성에 대하여 알려도 주시고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서는 따뜻이 일깨워도 주시였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등에 적극 이바지할 출판물의 좋은 내용들을 놓고서는 잘되였다고 하시며 평가도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4(1975)년 3월 출판사의 명칭을 금성청년출판사로 하도록 하신것은 항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태여난 청소년출판물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데 대한 크나큰 기대가 담겨있었다.

금성청년출판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든 열혈혁명가들처럼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일하여 주체적인 청소년출판물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피타는 사색과 열정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금성청년출판사창립 35돐을 맞이하던 때에는 몸소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금성청년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청소년사업방침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여 청소년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축하문은 기자, 편집원들을 더 큰 위훈에로 떠밀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성청년출판사사업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는가 하는것은 주체69(1980)년 봄날에 있은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감동깊이 느낄수 있다.

어느날 금성청년출판사의 한 기자가 북부산간지대에서 취재활동을 벌리다가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사랑의 직승기를 띄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의 치료를 위한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새 청사를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금성청년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금성청년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출판보도활동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면서 당의 혁명위업수행에 빛나는 위훈을 새겨올수 있었다.

금성청년출판사의 자랑찬 력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전국의 고급중학교들과 초급중학교, 소학교들에서 리용하게 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연구실도록》 편집안을 보아주시였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대표들에게 《소년신문》을 빠짐없이 안겨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기념도서의 편집과 발행에 공로가 있는 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금성청년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오혜선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는 우리 금성청년출판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청소년출판보도물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겠습니다.》

금성청년출판사는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선전의 위력한 기지이며 선군시대 청소년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다.

절세위인들의 비범한 령도의 결정체인 금성청년출판사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전렬에서 800만 청소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우며 진군의 나팔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것이다.

### 수령결사옹위로 긍지높은 청년보의 어제와 오늘, 래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들이 변색되여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아침에 말아먹게 하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에 섰던 비극이 새겨져있다.

그와는 하늘땅같은 대조를 이루며 우리의 청년보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당적출판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붉은 성새를 철옹성같이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청년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줄 사명을 지니고 태여난 혁명적출판물들이 력사의 풍랑속에서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청년들의 참다운 벗, 친근한 길동무가 되자면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셔야 한다는것은 우리 청년보의 긍지높은 력사가 전하는 진리이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언덕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투쟁의 자욱들을 되새겨보면서 책임주필 최순철동무를 비롯한 청년전위신문사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청년전위신문사의 연혁사에 참으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주체43(1954)년 5월 22일,

그날은 이곳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또 한분의 위대한 스승이신 어버이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끝없이 매혹된 날이였다.

그날 민주청년사(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판보도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세운 이곳 종업원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도 기계를 손으로 돌리면서 신문을 찍어 청년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보면 《민주청년》에 국기훈장을 수여할만 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청년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였던가.

전화의 용사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킨 민주청년사의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누구보다 속깊이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전화의 나날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청년들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에로 떠미는 출판보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4월 14일과 주체52(1963)년 2월 9일에도 민주청년사를 거듭 찾으시면서 출판보도물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기자, 편집원들이 바삐 뛸데 대한 문제로부터 《동해의 불사신》과 같은 실효성있는 기사들을 많이 집필하여 편집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장군님,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의 안목을 틔워주시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투철한 수령관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에 특별한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50돐을 하루 앞두고 민주청년사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찍는 사진 한장한장이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을 교양하는 거울로 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탄생 50돐 기념특집을 특별히 힘을 넣어 잘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어느날엔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청년》에 실린 한 기사를 읽으시고 몹시 기뻐하시며 그 기사의 주인공들이 발휘한 사상정신적풍모가 로동당시대, 천리마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특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기자, 편집원들의 긍지와 행복은 출판보도활동의 성과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원쑤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헐뜯으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던 그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그 가르치심은 민주청년사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되였고 그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준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하기에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그들은 청년교양에 이바지할 힘있고 호소성있는 기사편집물들을 훌륭히 만들어 내보내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적서사시를 감동깊이 엮어올수 있었다.

사람들이여, 우리 추억의 배를 거슬러올라 주체52(1963)년 2월 5일부 《민주청년》 신문지면을 다시 펼치여보자.

우리 당출판보도물중에서 처음으로 그 신문지면에 어버이장군님의 존안이 모셔졌으니 일찍부터 절세위인을 우러러 해솟는 바다처럼 끓어번진 이들의 충정에 진정 감탄을 금할수 없다.

이런 그들이기에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혁명의 필봉을 총대처럼 억세게 틀어쥐고 자강도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취재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어버이장군님의 눈물겨운 강행군실록을 력사에 소리높이 전하고 장군님께 그토록 큰 힘을 안겨드릴수 있었던것이다.

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청년전위》에 력사적인 담화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도 발표하시면서 청년보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오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조국과 민족,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불철주야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전위신문사의 사업에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난 3월 어느날에도 《청년전위》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불멸의 사적이 아로새겨졌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청년전위》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청년보와 더불어 수백만 청년들의 심장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을 더욱 활활 지펴올리시려는 웅심깊은 뜻이 여기에 어려있었다.

수령결사옹위로 긍지높은 청년보의 어제와 오늘은 청년들의 꿈과 리상이 실현될 휘황한 래일에로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정수
본사기자 채인철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금성청년출판사에서—

—청년전위신문사에서—

#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

## 몽골인민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즈.멍흐바뜨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력사적인 곳을 방문하고 대를 이어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온 만경대일가분들의 위대한 생애를 잘 알게 되였다는 글을 남기였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고급당학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 챠드수상, 챠드구국애국운동 총비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칼제베 빠히미 챠드공화국 수상이 15일 정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수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하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을 훌륭히 완성해나가고있는데 대해 경탄을 금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챠드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들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수상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재확언하고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려는것은 챠드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 *

베욥 말로 아드리앵 챠드구국애국운동 총비서가 15일 정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과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자신의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챠드구국애국운동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그분들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근본리념이기도 하다.

우리 당원들은 청년시절부터 주체사상에 공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불멸할 거대한 업적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 자주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은 챠드구국애국운동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다.

다같이 적대세력들의 책동속에서 혁명하고있는 챠드구국애국운동과 조선로동당은 서로 지지하고 련대하여야 할것이다.

챠드구국애국운동은 조선로동당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며 두 당사이의 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일터의 자랑—년간계획완수자들

###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애국자,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같은 일념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신의주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의증산경쟁열풍속에 공장에서는 5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21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으며 그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공장의 자랑인 년간계획완수자들,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길우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위훈의 창조자, 참된 애국자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공장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현장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고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현장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는 한편 혁신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권사직장 권사공 강향숙, 로송림, 편직사직장 정방공 박충심, 최은실, 한은경, 3정방직장 정방공 류진옥, 2직포직장 직포공 리혜련, 허진향동무를 비롯한 21명의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편직사직장에서는 많은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지금 직장장 서란희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초급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로동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누구나 년간계획완수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년간계획완수자들의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생산자대중을 분발시키고 경쟁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일터마다에서는 혁신자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년간계획완수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발을 높이 들고 앞장에서 달리고있을 때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80여명의 로동자들이 그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증산경쟁을 벌리고있다. 기대공 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그 어느 직장에서나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공장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로동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인 방직원과 정양소운영을 짜고들어 합숙생들과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애쓰고있다.

더 높은 생산성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길우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 새 기술개척의 앞장에서

**원산항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선구자된 긍지를 안고 항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수행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항관리운영에 크게 기여한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한편 그들이 기술혁신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항의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에 고무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더욱 분발하여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며 기술혁신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김경일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항만기중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새로운 전력계통감시장치를 도입하여 현실에서 큰 은을 내게 하고있다. 이 장치를 받아들인 결과 지난 시기보다 항만기중기의 가동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리주혁동무 역시 항만기중기의 권양능력을 종전보다 1.5배이상 높일수 있게 자동계량장치를 연구제작하여 짐배의 짐싣고부리는 시간을 줄일수 있게 하였다. 이 기술혁신성과는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리주혁동무는 경영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항경영업무프로그람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였다.

김광명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도 항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쓰기에도 편리하고 용접의 질을 높일수 있는 직류용접기정류단을 제작하여 배수리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으로 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항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일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3대혁명소조원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 화대광산 운반갱 김대섭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화대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은 운반갱 중대장 김대섭동무를 두고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우리 광산에 꼭 있어야 할 사람!

20여년간 그가 착암공으로 일할 때에도, 몇해전 자진하여 동발공일을 시작할 때에도, 운반갱 중대장사업을 맡았을 때에도 모두가 그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착암공으로 일해오면서 김대섭동무는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는 전국적인 고속도굴진경기에도 여러번 참가하여 광산의 영예를 떨쳤다.

또한 합리적인 채굴방법들을 남먼저 받아들이고 썰매식착암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가치있는 새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광석생산량을 1.5배이상 늘일수 있게 한 사람도 다름아닌 김대섭동무이다.

그는 동발중대에 가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솔선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 우리 중대장

어느해인가 세찬 폭우가 광산을 휩쓸었을 때였다. 깊은 밤 갱이 걱정되여 달려나왔던 일군들과 광부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대섭동무가 온몸이 그대로 물주머니가 되여 사갱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돌리고있었던것이다.

이날 그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갱은 구원될수 있었다.

지금 운반갱중대원들은 누구나 김대섭동무를 우리 중대장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그는 중대장이기 전에 그들의 맏형이다. 그는 뜨거운 인정미와 혁명적동지애로 중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며 중대를 하나의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 백두산혁명강군은 빈말을 모른다

## 멸적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얼마전에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고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괴뢰군놈들이 우리측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 해군함선들에 총포사격까지 해댔다니 너무도 격분이 치밀어 가만히 있을수 없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식민지고용군에 불과하여 작전권도 쥐지 못한 팔삭둥이같은 놈들이 감히 백두산혁명강군앞에서 객기까지 부리였으니 정말 죽지 못해 안달이 난것 같다.

목숨보다 귀중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로 원쑤들을 씨종자 하나 남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결사의 맹세를 안고 사는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는 지금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어리석은 선불질때문에 연평도의 불바다가 펼쳐진 그 쓰라린 교훈을 그래 박근혜패당은 벌써 잊었단 말인가.

괴뢰호전광들이 이번에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 목적은 뻔하다.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조성된 극도의 통치위기를 북남사이의 긴장격화로 모면하고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참패를 피해보자는것이다.

그야말로 가소로운짓이 아닐수 없다. 그따위 유치한 도발이나 한다고 극악한 살인마들의 죄악이 가리워질수 있겠는가. 박근혜패당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적악행들을 저질렀다. 이런 천하의 역적들은 조금도 사정보지 말고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

북남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미친듯이 날치는 괴뢰군악당들을 이 땅에서 깡그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전이 개시되는 경우 어제날의 연평도불바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불소나기는 미국의 첨단무기와 장비로도 막아낼수 없다.

박근혜불망종들이 선불질을 해온 이상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에 괴뢰들에게 군사적타격을 들이댈 당당한 권리가 있다. 그에 대해 괴뢰들은 할 말이 없을것이다. 이제 벌어질 전면보복전은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기질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청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오 경 석

## 미친개 때려잡듯 무자비한 징벌을

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놈들이 바로 남조선괴뢰군이다. 우리와 한번 맞서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좀스럽고 비렬하게 뒤골목에서 도발의 총포소리나 내는 비루먹은 강아지새끼들같은 괴뢰군놈들을 우리는 원래 상대로 여기지조차 않는다. 하지만 이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도발을 걸며 광기를 부린 이상 절대로 가만있을수 없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고 어리석게 날뛰며 우리 민족에게 재앙을 몰아오는 괴뢰군악당들을 미친개 때려잡듯이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

괴뢰해군깡패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은 결코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극도의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박근혜년과 청와대의 사촉에 의한것이다.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다 못해 북침전쟁의 불집까지 터치려고 발악하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천하의 역적무리이다.

아군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 섬주변에서 벌어지는 적들의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없는 군사적타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의 선언은 절대로 살려둘수 없는 박근혜역적패당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쌓이고 맺힌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것이다.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찍해도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불벼락을 안겨 원쑤들의 아성을 통채로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적들과의 최후결전태세에 진입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천하의 역적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소탕해버리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려는 우리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세계는 조선의 신념과 배짱이 어떠한것인지, 도발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현실로 보게 될것이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모른다.

조선인민군 군관 주 영 철

## 도발의 본거지들을 쑥대밭으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가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작은 괴뢰해군함정들을 례외없이 조준타격대상으로 삼으며 사소한 도발에도 즉시에 경고없는 군사적타격을 가할것을 선언한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멋없이 날뛰는 괴뢰군놈들에게 진짜불맛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제 집에 뛰여들어와 마구 돌아치는 날강도를 그대로 놔둘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우기 조국의 신성한 령해에 감히 선불질까지 해댄 괴뢰호전광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수 있겠는가. 괴뢰해군함정들이 다시는 우리측 서남해상수역에 나타나지 못하게 그 가증스러운것들을 모조리 조준타격하여 바다속에 수장해버려야 한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4년전 연평도에서 우리측 령해에 대고 무모한 선불질을 하다가 백두산혁명강군의 강력한 대응타격에 의해 세계면전에서 불맞은 미친개 꼴이 되였던 괴뢰호전광들이 그때의 쓰디쓴 참패와 수치를 잊고 또다시 오만하게 날뛰고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아예 교훈을 찾을 놈도 없게 도발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극악한 호전광들을 제때에 박멸해치우지 않으면 후환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호한 결심을 반드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적들이 우리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만약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괴뢰호전광들은 명심하라. 도발의 대가는 응당 천백배로 치르어야 한다.

박근혜패당이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도발자들을 징벌하는 우리 혁명군대의 과감한 군사행동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채광소대장 고 경 찬

# 선불질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북침전쟁열에 들뜬 괴뢰호전광들이 극단적인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자멸의 함정을 파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일 괴뢰해군깡패들은 우리측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어선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쌍방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고 폭발전야의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는 서해해상에서 선불질을 해대는것은 전쟁도발을 작정한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미치광이짓이다. 이번에 감행된 괴뢰호전광들의 망동은 철두철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중대도발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지금 무모한 반공화국도발행위를 련이어 감행하고있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공개보도를 통하여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을 이 땅에서 씨도 없이 깡그리 쓸어버릴 단호한 결심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해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괴뢰호전광들과 최후결판을 볼 시각은 왔다. 열점수역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면서 전쟁도발에 광분하는 괴뢰군집단이야말로 반드시 소멸해버려야 할 물리적타격대상이다.

최근에 벌어지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괴뢰국방부 대변인이 우리에 대해 감히 《나라 아닌 나라》이니 뭐니 하고 마구 헐뜯던 끝에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상상 못할 폭언을 늘어놓은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괴뢰들이 북남관계를 전쟁문턱으로까지 몰아가는 히스테리적망동을 부린 멍텅구리를 처벌할 대신 도리여 해군깡패들을 내몰아 가장 예민한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 함선들에 총포사격까지 가한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바로 이로부터 앞뒤도 가리지 않고 전쟁의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괴뢰호전광들을 사전에 주동적인 군사행동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것이다.

《세월》호침몰대참사로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한 박근혜패당이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전쟁도발에서 찾고있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괴뢰군부는 우리측 수역에 대한 군사적침범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집중시키면서 서해 5개 섬일대에서 실탄사격훈련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다. 극도의 군사적긴장조성으로 여론의 초점을 분산시켜 격앙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정세를 역전시키려는 박근혜패당의 위험천만한 계책이 끝내 엄중한 군사적도발사건을 빚어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은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면전쟁에로 이어질수 있다.

박근혜패당의 반공화국도발이 전쟁불사라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고있는 이상 우리가 팔짱끼고 가만히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역적패당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뛰면서 위험한 도발을 거듭하고있는 현 사태에 결단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근혜와 괴뢰군부불망종들이야말로 이 땅에 전쟁의 재난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이고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반공화국도발에 기승을 부리며 조국강토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이런 극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은 품을 들여서라도 깨끗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더우기 비렬하고 좀스럽게 뒤골목에서 도발의 총포소리나 내는 괴뢰군불한당들과는 당장 군사적결판을 내야 한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의 선언은 그 어떤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은 우리와의 군사적결판에 나서든지 아니면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대해 사죄하고 그것을 전면중지하든지 두길중에 한길을 택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동족대결광신자들을 이 땅에서 깡그리 쓸어버리려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은 그 누구도 돌려세울수 없다. 세계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심 철 영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얼마전 남조선의 대법원이 수십년전에 조작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한것과 관련하여 22일 보도 제1063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의 대법원이 수십년전에 조작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은 1960년대말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10여명의 로동운동가들을 《반국가단체구성 및 내란음모죄》와 《간첩죄》를 들씌워 야수적으로 처형한 악명높은 모략사건이다.

당시 괴뢰중앙정보부는 구속령장도 없이 그들을 불법구금하고 장기간 살인적인 폭행과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여 《북의 공작자금을 받아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강압적으로 받아내고 모두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 가혹한 형벌을 들씌웠다.

그후 이 사건은 2009년 남조선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당시 괴뢰중앙정보부가 꾸며낸 날조극이였다는것이 폭로되였으며 최근 대법원에 의해 45년만에 무죄로 정식 판결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무죄판결이 《유신》파쑈독재를 부활시키고있는 박근혜《정부》에 경종을 울린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괴뢰당국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해나서고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것은 과거 파쑈도당이 조작한 간첩사건들이라는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없는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로 된다.

파쑈도당이 그 무슨 《반국가단체》라고 한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이름자체가 괴뢰중앙정보부가 간첩사건조작을 위해 지어낸 완전한 날조품이였다.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은 박정희역도가 《유신》파쑈독재유지를 위해 조작한 수많은 모략사건들중의 하나이다.

역도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강화하고 온 남조선땅을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살인적인 고문과 모략으로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각종 간첩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민주인사들, 각계층 인민들을 《용공》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 처형하는 전대미문의 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박정희역도가 종말을 고한지도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조선에서는 《유신》파쑈《정권》이 조작한 수많은 간첩사건의 모략적진상이 똑바로 밝혀지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내란음모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파쑈독재부활과 반인민적통치를 정당화하고 동족대결을 몰아오기 위한 간첩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괴뢰패당이 그 무슨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백주에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관계자들을 잡아가두고 온갖 허위와 날치기로 비렬한 재판놀음을 벌리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박정희역도가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이라는 간첩사건을 꾸며내 야만적인 검거, 탄압선풍을 일으키던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살벌한 《종북척결》의 칼바람속에 괴뢰패당이 감행하고있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 인사들에 대한 파쑈탄압책동은 그 횡포성과 잔악성에 있어서 《유신》독재시기를 무색케 하고있다.

그러나 파쑈암흑의 력사는 결코 되풀이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나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의 생명들을 통채로 바다에 수장시켜 억울하게 숨지게 한 박근혜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고 《살인마 박근혜정권 타도!》의 구호밑에 초불시위 등 대중적인 항의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썩어빠진 사회를 쓸어버리고 참다운 새 세상을 안아오려는 민심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의 반영이다.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진 괴뢰패당이 파쑈광란을 일으키는것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재촉하는것으로 될뿐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과거 《유신》독재《정권》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범죄의 진상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온갖 재앙의 화근인 괴뢰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 《의도적인 북풍몰이, 위험천만한 불장난》

## 괴뢰군부깡패의 도발적망발 규탄

얼마전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자가 우리 공화국을 《나라 아닌 나라》라느니 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지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고아댄것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리고 전쟁발발의 위기까지 몰아오는 무분별한 망동으로서 남조선 각계에서도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 대변인은 괴뢰국방부 대변인이 계속 북을 자극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자신을 전장의 야전사령관으로 착각하는것 같다. 그의 계속 이어지는 고의적인 대북자극발언에 깊이 우려하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 북풍선동이 아닌지 의심이다. 대북자극발언으로 남북관계긴장을 조성하는 국방부대변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당의 원내대변인도 이자의 악담에 대해 《의도적인 북풍몰이》라고 규탄하면서 이것이 《안보장사라면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이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을 련일 올리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제정신인가. 요즘 국방부가 왜 이렇게 앞뒤를 재지 않고 나서는지 알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괴뢰국방부가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로 작정한것 같다.》고 평하였다.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괴뢰국방부 대변인이 줴친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망발을 두고 《이것은 민중을 상대로 〈정부〉의 행정업무를 설명하고 립장을 밝히는 대변인이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지어 어느 기자도 묻지 않았는데 쏟아낸 말이다.》라고 폭로하면서 그에 대해 《〈세월〉호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둘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의 망발이 《북을 자극해 민중의 시선을 돌려보겠다는 속심이라면 당장 거두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민중이 두눈을 부릅뜨고있는 세상에서 과연 누가 〈력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국방부는 자문하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당국의 철도, 의료민영화책동을 비난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12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패당의 철도, 의료민영화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가 빚어졌지만 박근혜《정부》는 철도의 안전과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철도, 의료민영화를 막무가내로 내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세월》호참사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된 제도에 의한것이며 《정부》의 안일함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여야 할 철도와 의료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강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민주로총은 분노를 안고 1000인 로동자선언을 시작으로 철도와 의료부문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이어 1000인 로동자선언이 랑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력사의 오물, 패륜패덕의 살인마무리가 갈 곳은 무덤뿐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월》호대참사로 박근혜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있다.

여기에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 대표 리창기가 박근혜역도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저주와 격분을 터뜨리며 쓴 《박근혜〈정부〉정치적생명은 이미 끝났다》라는 제목의 눈물의 격문을 소개한다.

유리창을 의자로 깨고 나오려고 최후의 힘을 다하는 학생들, 그들의 마지막 처연한 모습을 보니 뜨거운 눈물을 참을수가 없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위해 망치로 유리창이라도 깨고 다녔다면 하는 생각에 정말 미칠것 같은 분노를 참을수가 없다.

유리창만 깨면 구할수 있는 학생들이 방마다 있었는데 망치로 펑펑 그것만 깨뜨렸다면 의자로 유리창을 깨려 끝까지 몸부림친 저 학생들을 얼마든지 구출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물이 차들어가는 만큼 배안의 공기가 물을 분수처럼 터뜨리며 빠져나오는 그 동영상의 마지막장면을 보며 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갔구나!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죽어갔구나! 찢어지는 가슴, 뜨거운 눈물을 참을수 없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딜수가 없다.

모든 장비를 강제로 총동원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는 《정부》는 그렇게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순간 구조는 내팽개치고 특정업체에 구조를 맡겨 막대한 리득을 줄 론의를 하였다. 그것이 해양수산부의 첫 사고대책회의였다고 한다.

아!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사는 남조선이란 말인가.

그리고도 이런 《정부》를 규탄하는 학부모들을 감시하고 비판글삭제명령이나 내리고있는 《정부》를 보면 정말 참을수가 없다.

단언하건대 박근혜《정부》는 더이상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천진하기 그지없고 서로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던 저 착한 아이들을 지키지도 구하지도 못했으면서 사죄와 반성은커녕 지지률이 떨어질것을 걱정하여 그런 내용을 인터네트로 고발하는 사람들을 류언비어류포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유가족도 아닌 할머니를 데려다가 분향소에서 위로하는척 하는 사진이나 찍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인기관리에만 여념이 없는 박근혜와 《정부》는 이미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다.

온갖 거짓보도로 《정부》의 구조활동을 찬양하게 하고 비판언론을 통제하다가 이제는 연극까지 벌리며 인기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민중을 좌지우지할수 있다고 업신여기는 태도는 극악한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초보적인 량심과 인정을 가진 일개 사람으로서도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하기에 이미 그 정치적생명은 끝난것이다.

설사 그들이 엄포와 간교와 언론통제로 이 위기를 넘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사고현장에서 살아난 아이들의 체험과 목격이 있고 학부모들이 확인한 진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아있기에 박근혜《정부》는 살아있어도 송장과 다름없는 《정부》이다. 아니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더욱더 치욕의 《정부》로 민중의 가슴과 력사에 기록되게 될것이다.

이미 력사와 민중의 심판은 끝났다. 남은것은 박근혜의 선택뿐이다.

그 선택에 따라 민중은 단죄를 내리게 될것이다. 무섭고도 단호한 단죄로 될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본사기자

# 《박근혜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 남조선언론인이 주장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는 재미동포들

# 민족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동해명승 송도원에 멋쟁이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태양의 축복받은 우리의 새 세대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가. 얼마나 밝은 미래를 안고 사는 복동이들인가.

모든것이 넉넉한 때에 이루어진것이면 우리들의 가슴을 이다지도 울리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으로 한푼한푼의 자금이 얼마나 귀한 때인가.

아이들이 잘 먹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더 높아질수 있다고, 우리가 겹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귀한 자금을 들여 도처에 미림승마구락부며 인민야외빙상장, 릉라곱등어관이며 릉라립체률동영화관, 마식령스키장이며 옥류아동병원 등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여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퍼지게 해주시고 희한한 궁전까지 꾸려주시여 우리 학생소년들을 온 세상이 부럽도록 행복동이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에 이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물론 철부지아이들도 감격의 눈물을 쏟고있다.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우리 학생소년들처럼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 아이들은 앞날의 조선의 훌륭한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날 때 한강토, 한지맥인 남조선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가.

가정의 락이고 기쁨이던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몸부림,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들의 처절한 모습이 가슴을 찢는다.

《내 자식을 살려내라.》, 《〈정부〉는 살인마다!》, 《박근혜가 책임지라!》…

진도앞바다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의 시신앞에서, 아직도 차디찬 날바다속에 누워있을 자식생각으로 부모들의 가슴에서 피의 울부짖음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부모, 형제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떠난 걸음이라 나어린 학생들은 좋아서 온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재잘거리며 수학려행의 길을 떠났을것이다.

그러던 그들이 전시도 아닌 때에 너무도 원통하게 목숨을 잃었다.

피를 주고 생명을 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뜨겁고 열렬하다. 하기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며 자식들의 귀여운 얼굴에서 행복을 찾고 무력무력 커가는데서 기쁨을 찾는다.

이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우던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졸지에 빼앗겼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차거운 바다물속에 빠져들면서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불렀으리라.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마지막힘을 깡그리 다했으리라.

하다면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속에 누워 원한품고 죽어갈 때 박근혜패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듯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돌아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양을 떨며 상전의 비위를 맞추느라 꼬리를 쳤다. 불쌍하게 숨져가는 애어린 생명들의 운명을 외면했다.

제도를 잘못 만난탓으로 꽃망울도 터치기 전에 불행하게도 목숨을 빼앗긴 불쌍한 수백명의 남조선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 막 미여진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속에 세상을 저주하며 얼마전 어느 한 피해자유가족은 자살의 길까지 서슴없이 택하였다.

숭고한 후대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서 내 조국의 밝고 창창한 래일을 약속하며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남조선 진도앞바다에서 억울하게 숨진 아이들의 운명을 통해 우리 겨레는 다시금 똑똑히 새겨안고있다.

북과 남의 어느곳이 락원이고 지옥이며 민족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본사기자 라설하

# 《정권》퇴진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6일 남조선의 전국공무원로동조합이 서울에 있는 괴뢰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국선언은 현 《정권》의 무실과 무능이 《세월》호참사를 빚어냈다고 까밝혔다.

꽃같은 학생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법선거개입에 분노한 민중, 룡산참사유가족들, 쌍룡자동차로동자들을 비롯한 약자와 민중을 향해 권력기관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라고 규탄하였다.

민중의 안전을 뒤전에 밀어놓고 권력자들의 리익만을 위하는 썩은 사회구조를 보고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당선초기 그 무슨 안전에 대해 외워대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잔재주까지 부렸으나 지금까지 한것이란 《정부》의 안전을 위해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측근들을 요직에 들여앉히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화추진에 앞장선것뿐이라고 단죄하였다.

이번 참사를 통해 박근혜는 재해위험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무능한 《정권》, 태생적으로 불법적인 현 《정권》의 우두머리인 박근혜는 즉시 퇴진하여야 한다고 시국선언은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의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참사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범국민행동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민중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현실을 통해 똑바로 보며 분노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민중이 한데 모여 범국민추도회를 열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발표되였다.

단체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유가족, 민중들로 국민진상조사단 등을 구성하여 추모사업, 참사관련 백서발간,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단체는 실종자구조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랑독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단 한명의 실종자도 없도록 하며 참사의 원인규명,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사업에 유가족들과 민중을 참가시켜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월》호침몰사고원인과 구조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성명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땅우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에날마다 더욱 높아가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화기가 펼쳐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에서 국제사회계는 인민의 리상과 꿈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에 대해 높이 찬양하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비범한 령도예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예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하심으로써 조선에서는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게 되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는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안아왔다, 군대가 앞장에 서고 인민들이 군인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는 속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천만군민을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예술에 국제사회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비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지금 세계언론들은 우리 인민에게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손길아래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많이 건설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완공된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웰남의 인터네트통신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비롯한 녀성질병들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이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있어 녀성들은 이곳을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보도하였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열기로 이어지고있다.

기네농업성 농업과학총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모두가 사회의 주인으로서 긍지높은 생활을 누리고있는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훌륭한 새 집들이 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차례지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고마운 이 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충천한 투쟁기세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이 더 큰 번영을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라오스건국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동하는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평양에는 인민을 위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몰라보게 변모되고있는 평양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체류기간 〈단숨에〉라는 말을 배웠는데 현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경제강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험한 날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그이의 크나큰 로고에 의해 조선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온 토로들은 인민들의 행복한 삶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의 분출이다.

그렇다.

우리 조국을 만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애국헌신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세인의 동경과 찬탄속에 주체의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김 수 진

# 세계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루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선군령장과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자주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은 김정은령도자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면서 년초부터 조선에 대한 압살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높은 국가적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글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의지앞에 미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해 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신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힘있게 과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이끄시였다.

희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을 이 땅에서 씨도 없이 깡그리 쓸어버리자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다》를 21일과 2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21일 공개보도를 발표하여 남조선측이 20일 서남해상수역에서 자국함선들에 총포사격을 가한데 대해 규탄하면서 상대측이 계속 도발한다면 경고없는 군사적타격을 가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개보도는 남조선측이 최근 조선측 수역에 대한 군사적침범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총포실탄사격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해군이 조선측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함선들에 총포사격을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고의적인 중대도발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남조선측에 다음과 같이 공개통고하였다.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작은 괴뢰해군함정들은 례외없이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관하 모든 타격수단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대상으로 될것이다. 조선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 섬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없는 군사적타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중국의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조선 경고없는 조준타격을 가할것이라고 통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를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일본반동들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은 자멸의 길이다

## 렬도에 불소나기를 몰아오려는 자살적망동

얼마전 일본정부가 헌법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겠다는 립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일본집권세력은 오래전부터 《집단적자위권》을 가지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왔다. 일본정부의 이번 립장발표는 그러한 책동이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는것을 시사한것이다.

올해초 일본자민당 간사장 이시바는 《집단적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명확히 가입국의 고유한 권리라고 되여있는데 왜 일본만이 허용되지 않는가.》라고 강변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강조할것이 있다. 그것은 집단적자위권이 철두철미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막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은 보통국가라면 누구나 다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유엔가입국이지만 보통국가는 아니다. 과거에 침략을 당한것이 아니라 침략을 직접적으로 한 나라이다. 그것도 한두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극악한 전범국이다.

유엔헌장 제8장 제53조에 따라 일본은 적국으로 규제되였다.

오늘도 일본은 수치스러운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일본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보통국가로서의 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한 나라이다. 침략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로골적으로 외곡하고 미화분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도리여 제국주의시대를 그리워하고있으며 찬양하고있다. 집권세력이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고 하는것은 다름아닌 일제시기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 하는것은 결국 일본을 과거시기처럼 다시금 침략을 하는 나라,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패망후 일본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허용을 엄금한 헌법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이 나라가 다시는 전범국, 전쟁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절절한 요구와 지향의 산물이다.

일본이 근 70년간 전쟁을 모르고 평화적환경속에서 경제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헌법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일본집권세력은 그 무슨 《안보환경의 엄혹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 등을 떠들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어떻게 해서나 용인하려고 획책하고있다.

하다면 현재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조성되고있는가.

최근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집단적자위권〉:근거없는 헌법의 파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엇때문에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해야 하는지,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적지 않은 언론기관들도 정부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놀음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집권세력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것이라고 줴치고있는것만 놓고서도 무엇을 노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지배주의, 패권주의에 환장한 미국이 세계평화를 해치는 암적존재이며 침략의 우두머리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것은 미국과 함께 침략과 전쟁의 길에 로골적으로 나서겠다는것이다.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문건에는 조선반도《유사시》 등의 내용도 포함되여있다. 특히 《자위대》를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에서 그 무슨 《구출작전》을 벌린다는 안도 들어있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미국이 도발할 제2의 조선전쟁에 《자위대》무력을 선견대, 돌격대로 들이밀겠다는것이다. 그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겠다는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렬도에 불소나기를 몰아오는 자살적망동이다.

일본정부는 제2의 패망이 과거의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리 경 수

## 헌법해석변경에 숨은 위험한 기도

최근 해외팽창을 위한 일본의 군국화, 우경화흐름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의 하나가 《집단적자위권》을 되찾겠다는것이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집권계층이 그토록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악심을 품고 접어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일반적으로 자위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위한다는 뜻으로서 해당 국가가 군사적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위권은 자주독립국가가 가지고있는 합법적권리이다.

국제법에서는 침략전쟁과 방위전쟁을 명백히 구분하고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자위권행사를 매개 나라들의 합법적권리로 규제하고있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자위권행사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할수 있게 되여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적자위는 침략을 당한 국가가 자체의 힘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는것을 말하며 집단적자위는 2개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는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집단적자위를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이 감행되는 경우 침략을 당한 국가와 함께 제3국이 공동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할수 있다고 정의하고있다.

이러한 집단적자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전범국가로서 무장해제당한 일본은 법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일본은 전후 전쟁과 군사력의 증강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존재할것을 국제사회앞에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1947년에 채택된 《평화헌법》 제9조에는 일본이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혀져있다.

이로써 일본은 다시는 그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과 집단적자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것을 헌법으로 담보하였다.

다시말하여 자국방위외에 그 어떤 무력행사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법화하였다.

이 헌법에 의하여 일본은 개별적자위권만 가진 나라로 되였다.

그런 일본이 오늘날 《집단적자위권》을 되찾겠다고 하는것은 해외진출과 군사적침략을 정당화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평화헌법》에 대한 로골적인 거부이고 공공연한 해외침략주장이다.

목적은 교전권과 참전권을 되찾음으로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지배하고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지금 일본집권자들을 비롯한 극우익보수세력은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외침략을 추구하는 저들의 범죄적속심을 가리우고 내외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에서 과거의 력대 정권들은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는 《평화헌법》 제9조에 대해 《개별적자위권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내이지만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반격할수 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는 그 범위를 초월하기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현 정권은 필요최소한도의 자위권행사에 《집단적자위권》행사도 포함되는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한 한정적인 허용으로 될것이라고 잔꾀를 부리고있다.

또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그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느니, 방어하지 않을 경우 동맹에 상상할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를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미국의 속심을 더욱 자극하여 미국으로부터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는 술책이다.

이미 《전수방위》로부터 선제공격에로 군사전략을 전환한 일본에 있어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는 골 재침이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이 주저없이 진행되게 될것이며 결국 세계는 과거 일제에 의해 강요당한 고통과 참혹한 피해를 또다시 입게 될것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재침야망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에 있어서 생존의 유일한 출로는 과거를 성근하게 뉘우치고 진정한 평화국가로 남아있는것뿐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 단평 가을빼꾸기같은 소리

최근 미국방성 대변인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정부는 일본이 《평화》를 존중하는 그 무슨 《전통을 이어가리라고 확신한다.》는 소리를 하였다.

일본언론이 실시한 5월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절반이상이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반대하였다.

이전 자민당 간사장 가또는 얼마전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면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가 지구의 반대쪽까지 가는 일이 가상된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재침, 군국화를 노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두고 《평화》요, 《전통》이요 하는것은 무슨 가을빼꾸기같은 소리인가.

미국이 확신한다고 하는 일본의 《평화전통》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일본반동들은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거치장스럽게 여기던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렸다. 전시동원체제, 파쑈체제를 수립하고 《유사시법》 정비가 다그쳐지고있다.

미국은 일본이 전범국에 어울리지 않는 《집단적자위권》을 열심히 광고하면서 재침책동에 계속 박차를 가할것을 바라고있다.

재미난 골에 범난다는 속담이 있다.

일본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른 대국들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들다가는 어느때 가서든 큰코를 다칠수 있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현 도

당국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들

## 로씨야대통령 중국 방문

【베이징 5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20일과 21일 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습근평주석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은 쌍무관계와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끝에 중국과 로씨야사이의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문건들이 조인되였다.

방문과정에 뿌찐대통령은 습근평주석과 함께 중로해군합동군사훈련 《해상협력—2014》를 시작하는 의식에 참가하였다.

##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 큰 물

동유럽나라들에서 최근 여러날째 계속된 무더기비로 큰물피해가 났다. 100여년래 최악의 큰물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와 쓰르비아에서 20여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주민세대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쓰르비아에서는 큰물로 15일현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600여명이 소개되였다. 또한 300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도로와 철길들이 파괴되였으며 약 10만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전국의 20개 주요도시들에서 많은 물질적손실이 초래되였다.

### 산 사 태

그루지야의 북부국경지역에서 17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고속도로가 차단되는 등 교통이 마비되였다. 현지에서 구조조치가 취해지고있다.

### 대 풍

슬로벤스꼬에서 최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16일현재 나라의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10만세대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여러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웠으며 도로와 철도운행이 마비되였다. 피해지역들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국제생물다양성의 날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들호상간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사이에 호상작용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안에서의 생물종의 다양성, 종안에서의 유전자의 다양성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생물다양성의 이 세 요소는 뗄수 없는 전일체를 이루고있다.

오늘 지구상의 생물종류는 산림의 란벌과 파괴,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의 오염 등으로 하여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있다.

생물종들은 일단 사라지면 영원히 재생될수 없기때문에 이것은 거대한 자원손실로 되며 전반적인 생태계통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나중에는 인류의 생존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

이러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에서 진행된 유엔환경 및 발전대회에서는 150여개 나라가 생물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보호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부터 유엔총회 제55차회의 제201호결의에 따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이 12월 29일로부터 5월 22일로 개정되였다.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였다.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유엔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국제적인 관심속에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각종 모임들과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최근시기 지구적인 생물다양성보호에서 작은 섬나라들의 생물다양성보호가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올해 유엔에서는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의 주제를 《섬생물다양성》으로 제시하였다.

대양과 대륙으로 이어진 지구상에는 크고작은 섬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러한 섬들은 독특한 지리적 및 지형학적특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이루고있다. 여러 나라의 일부 섬들에는 아직까지도 자기 고유의 특수한 성질을 가진 토착종들이 살고있다. 이것들은 생물진화력사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날로 더해가는 개발활동은 륙지는 물론 섬들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계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특히는 섬나라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섬을 보호해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으며 크고작은 섬들이 많다.

섬들은 생물다양성을 비교적 풍부히 이루고있어 바다새들의 번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섬들에 철새보호구를 정하고있을뿐아니라 섬들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보호지역에서의 일체 개발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새들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을 없애고있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는 생물다양성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다.

동식물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과 같은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것이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김 경 순

#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 세계적인 피난민수 증대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무장충돌로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증대되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4일 유엔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그러한 피난민들의 수가 820만명 더 늘어나 약 3 33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련속 2년째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 탄광폭발피해 확대

뛰르끼예의 마니싸주에 있는 한 탄광에서 최근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6일현재 사망자수가 29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갱안에 갇혀있는 로동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 경제 감퇴, 실업자 증대

네데를란드에서 1.4분기에 경제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4% 감퇴되였다. 15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네데를란드에서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증대되고있다.

15일 이 나라 통계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4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보다 3 000명 더 늘어나 68만 7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물가 인상

미국에서 4월까지의 지난 1년동안에 물가가 2% 인상되였다. 특히 에네르기와 식료품가격이 많이 올랐다 한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 파 업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15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파업이 일제히 벌어졌다. 파업에는 학교, 병원, 비행장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자들 약 30만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긴축조치로 자기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된데 대해 항의하고 근로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사기협잡행위 성행

에스빠냐의 마드리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사기협잡행위가 성행하고있다. 14일 이 나라 경찰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급양, 건설 등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속에서 그러한 행위로 740명이 체포되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췰란드에서 콤퓨터망을 통한 은행사기협잡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2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그러한 협잡행위가 공식 등록된것만도 약 4 100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19.2% 많은것이라고 한다.

### 생활처지전망에 비관

일본근로자들속에서 자기들의 생활처지전망에 대한 비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7일 이 나라의 교도통신은 여론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66.9%가 앞으로 자기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될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전하였다.

### 각종 범죄

노르웨이의 중부지역에서 16일 20살 난 범죄자가 최근 2년동안에 48명의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적학대를 가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같은 날 이딸리아의 피렌쩨시에서 범죄그루빠가 적발되여 18명이 체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41080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